**대림 제4주일(2018년 12월 23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며칠 머물렀습니다. 밤에 예루살렘의 한 호텔에서 창문을 통해서 멀리서 반짝이는 베들레헴의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그 밤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작은 도시, 베들레헴. 산 기슭에 만들어진 도시라 가파른 언덕이 많았습니다. 당시, 인구 조사를 위한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고향으로 몰려갔었기 때문에, 그 작은 도시가 아주 붐비고 복잡했었지요. 마리아와 요셉도 그 호적 등록을 하러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었던 겁니다.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 더군다나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고, 곧 아기를 출산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낼 만한 방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본 여관 주인들이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여관 주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들의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도와줄 수가 없네요. 미안합니다. 나보고 너무 냉정한 사람이라고 욕하지는 말아요. 나도 내 할 일이 있고, 더 급한 일이 많아서 당신들과 태어날 아기의 딱한 사정을 봐 줄 수가 없어요. 다른 곳도 다 사정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괜찮다면, 저쪽에 비어있는 마굿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라도 하룻밤 지내도록 해요. 더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나는 바빠서 그만 가봐야 겠어요. 그만 가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모두 거절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유다인들은 나그네를 도와주고 잘 대접해야 한다는 관습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온 마을 사람들은 딱한 처지에 놓인 그 나그네들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그때 그 당시 베들레헴이나 지금 세상이나 비슷한거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도, 그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들과 때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문전박대하고 있는 거죠. 바쁜 일이 더 많아서, 그리고, 마음 속에 친절함과 자비심이 부족하고, 미움과 욕심이 가득차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는 그리스도를 그냥 거절하고 말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예수님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미안합니다. 딴데 가서 알아보세요. 제가 지금 할 일이 많고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세요. 아니면, 제발 딴데 좀 가보세요!”
   이제 바로 내일이면, 세상 곳곳에서 성탄을 경축하고 기념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민족과 국가들이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제각기 자기네 문화와 자기네 언어로 이날의 기쁨과 평화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 만큼은 세상에 전쟁도 없고, 테러도 없고, 증오도 다 사라집니다. 이 며칠동안은 세상 사람들이 성탄의 거룩함과 행복을 기억하고, 선물을 나누고 평화와 사랑을 함께 이야기 합니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평화와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 분은 세상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피부 색에 상관없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리고 지식인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간에,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건 간에, 또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았던 간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는 하느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마음이 부서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참된 사랑과 행복과 희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절대 혼자가 아님을, 사랑의 하느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는 메세지를 전해 주는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느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메세지를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옛날 첫번째 성탄절이 있었던 이후로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순간 만큼은 감동과 평화가 가득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과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사랑에 대한 인간의 꿈과 하느님의 꿈이 일치되고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성탄 바로 직전에 대림 4주일을 지내면서, 복음은 다시 한번 이런 희망과 기쁨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만납니다. 마리아와 친적 언니 엘리사벳. 유다의 시골 산골 마을에서 이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 집니다. 그 만남의 장소, 지난 성지 순례 때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진짜로 깊은 산골짜기 언덕배기, 보잘것 없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두 여인이 만났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신심 깊고 충실한 이 두 시골 여인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실현되고 완성됩니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 가난한 두 여인. 한 여인은 구약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여인이었고, 다른 여인은 신약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옛 계약과 새로운 계약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 작은 산골 시골 마을에서, 이 충실한 두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온 세상으로 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약속과 희망은 지금 여기 우리들 마음속에도 가득  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희망과 약속의 시간이 다가 왔습니다. 마리아가 달이 다 차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시간이 다가오고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다 걷히고, 위대한 빛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이 우리 삶안에서 실재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받이들이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들의 몫입니다.